

## 패스트푸드 섭취가 청소년의 식행동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

허은실 · 이경혜<sup>1)†</sup> · 배은영<sup>1)</sup> · 류은순<sup>2)</sup>

창신대학 식품영양과, <sup>1)창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부경대학교 식품생명공학부</sup>

### Interrelations Among Fast Food Intake, Food Behavior, and Personality in Adolescents

Eun-Sil Her, Kyung-Hea Lee<sup>1)†</sup>, Eun-Young Bae<sup>1)</sup>, Eun-Soon Lyu<sup>2)</sup>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shin College, Gyeongnam, Korea

<sup>1)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sup>

<sup>2)Faculty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Korea</sup>

#### ABSTRACT

Especially, the teenage period, an important lifetime to develop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needs to be helpful to promote the growth of the body and to keep a well-balanced mind through a balanced and nourishing diet. It is well known that the western style fast food is the most liked meal by teenagers. Wrong recognition about fast food and its frequent intake by adolescents can lead to unbalanced diet and food behaviors which may also connect with a poor impact on their personalities as well as their physical health. In this study, therefore, relationships between fast food intake frequency and food behavior, sociability, and personality, such as anger expression, were surveyed from 1,295 adolescents (666 in Seoul, 316 in Changwon, and 313 in rural communities), and then analyzed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are shown as follows. The fast food preference score and the fast food intake frequency score showed no differences between male students (22.9/30, 14.4/30 respectively) and female students (23.0/30, 14.0/30 respectively). But, the fast food preference score correlated positively with the intake frequency score ( $r=0.304$ ) significantly ( $p<0.001$ ). The more frequently eating of fast food group show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 $r=-0.233$ ,  $p<0.001$ ) in food behaviors. The frequency of fast food intake had no relationships with sociability, but it had a significantly effect on anger expression ( $r=0.213$ ,  $p<0.001$ ) and control ( $r=-0.147$ ,  $p<0.001$ ). From these results, we could see the necessity of various nutrition education programs to build proper eating-out habits and also more studies are needed to find the relationships between fast food intake and growth and personality.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2(6) : 714~723, 2007)

**KEY WORDS** : fast food · food behavior · personality · sociability · anger expression · adolescents

#### 서 론

요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의 식사보다는 밖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기호성 위주로 패스트푸드를 선택하여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선택 시에 맛, 가격, 편리함을 중요시 여기는 반면 영양균형에 대해 크게 고려하지 않는 실정이다(Kim & Cho 1994).

Park 등(1999)은 10~50대를 대상으로 패스트푸드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하는 대상자는 89%이었고, 30대 이상보다는 10대와 20대 연령층에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자주 이용하고 있었으며, 주로 섭취하는 패스트푸드로는 햄버거, 치킨, 피자의 순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Jeong(2001)은 1주일에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고등학생은 32.5%이고, 조사대상의 68.3%는 패스트푸드가 한 끼 식사로 적당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이들 중에 43.2%는 영양에 대한 지식이 적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에서 국내 패스트푸드의 세트메뉴 18종을 분석한 결과, 햄버거세트의 평균 열량은 888 kcal로, 이는 10~12세 여자 어린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하루 권장 열량의 44%이고 지방함량은 하루 섭취 기준량의 64%이며, 조사대상 어린이의 35.3%가 햄버거, 음료, 후렌치 후

접수일: 2007년 10월 11일 접수

채택일: 2007년 12월 5일 채택

†Corresponding author: Kyung-Hea Lee,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9 Sarim-Dong, Changwon, Gyeongnam, 641-773 Korea

Tel: (055) 213-3514, Fax: (055) 281-7480

E-mail: khl@changwon.ac.kr

라이로 구성된 세트메뉴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각 음식을 1회 serving size로 섭취 시 과잉섭취로 인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Lee(2004)는 패스트푸드를 선호할수록 식사가 불규칙적이고 편식이 심하였으며 패스트푸드를 선호하는 학생은 비선호 학생보다 패스트푸드가 영양적이고 건강에 좋으며 위생적이라는 긍정적인 견해가 높았고 또한 패스트푸드에 대한 지식이 낮을수록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영양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식생활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일 뿐 아니라 기분과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Gutfeld & Rao(1993)은 인스턴트의 단 음식, 지방이 많은 간식, 담배가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한다고 주장하였고, Pollitt(1994)는 청소년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을 먹으면서 음식을 먹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며, 이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충동성과 상호 작용하여 자기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패스트푸드 섭취는 식행동 뿐만 아니라 건강과 인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Pudel & Westenhofer 1991; Seo 1992; Kim & Shim 1995). 그리고 이런 성향을 초기에 바로 잡아 주지 않으면 교정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건강문제나 사회문제를 치료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패스트푸드 선호도와 섭취빈도, 식행동 등의 차이를 알아보고, 패스트푸드 섭취가 식행동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를 통하여 알아보았다.

##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대도시인 서울지역 700명, 중소도시인 창원지역 350명, 농·어촌지역인 남해·합천지역 350명(총 1400명)의 중·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기입법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 중에서 1327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4.8%), 일관성이 없거나 미기재된 응답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총 1295부(92.5%)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조사내용 및 방법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 거주지역을 일반사항으로 조사하였다.

### 2) 패스트푸드 이용실태

패스트푸드의 이용 빈도, 이용이유, 그리고 이용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 3)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

12종류의 패스트푸드를 가지고 5점 척도법(1: 매우 싫어한다, 2: 싫어한다, 3: 보통이다, 4: 좋아한다, 5: 매우 좋아한다)으로 선호도 조사를 하였고, 5점 빈도법(1: 거의 먹지 않음, 2: 1회 정도/1개월, 3: 1회 정도/2주일, 4: 1회 정도/1주일, 5: 2회 이상/1주일)으로 섭취빈도를 구하였다. 그리고 나서 점수가 높은 서구식 패스트푸드인 햄버거, 피자, 치킨과 한국식 패스트푸드인 떡볶이, 김밥, 라면만을 다른 변수들과의 관련성 비교에 이용하였다.

### 4) 식행동

식품 선택 시 기준 사항과 식사의 규칙성, 과식, 결식, 편식, 외식, 간식 등 전반적인 식행동에 대한 문항은 선행연구(Kim 등 2004)의 문항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Cronbach's  $\alpha = 0.718$ ). 각 항목별로 1주일에 '0~2일', '3~5일', '6~7일' 중 얼마나 자주 각각의 식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개인의 식행동 횟수는 긍정적 문항(1번~12번)의 경우 '0~2일'에 1점, '3~5일'에 3점, '6~7일'에 5점을 부여하였고, 부정적인 문항(13번~18번)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90점을 만점으로 계산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5) 인성

인성 중에서 사회성과 분노표현 정도에 대한 자기평가를 위하여 사회성의 경우는 이상로 등(2000)이 사용한 사회성 평가 문항(22문항)을 이용하였고(Cronbach's  $\alpha = 0.487$ ), 해당되면 1점, 그렇지 않으면 0점으로 하였다. 분노표현(24 문항)은 한국판 STAXI(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이용하였다(Hahn 등 1997). 분노는 표현방식에 따라 분노억제(anger-in, 8문항), 분노표출(anger-out, 8문항), 분노통제(anger-control, 8문항)로 구분하였고(Cronbach's  $\alpha = 0.787$ ), 4점 척도로 하였다(1: 전혀 아니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언제나 그렇다).

### 3. 자료처리

조사된 자료는 SPSS 12.0 program의 교차분석, ANOVA를 이용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하였으며, 변수 간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stepwise 방식으로 선형회귀분석을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검증은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합천은 '간식용'(46.2%)으로 섭취하는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

## 결 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 대상자의 지역에 따른 일반사항은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661명(51.0%), 여학생이 634명(49.0%)이었고, 학교별로는 중학생이 667명(51.5%), 고등학생이 628명(48.5%)이었다.

### 2. 패스트푸드 이용실태

패스트푸드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청소년들은 패스트푸드를 '한 달에 1회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63.9%),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17.9%이며, 지역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이유에서는 '맛이 있어서'(50.7%)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간편해서'(29.7%), '가격이 싸서'(6.4%) 순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섭취의 주된 목적으로는 서울(60.6%)과 창원(57.5%)은 '식사대용'으로, 남해·

### 3. 패스트푸드 선호도와 섭취빈도와의 관련성

#### 1) 패스트푸드 선호도와 섭취빈도

각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와 섭취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선호하는 패스트푸드로는 '치킨'(4.07점/5점)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라면'(3.59점/5점)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선호도 총점에서 서울(22.4점/30점)이 창원(23.6점/30점)과 남해·합천(23.5점/30점)보다 유의적으로 낮았고( $p < 0.001$ ), '피자'를 제외한 나머지 패스트푸드들에서 지역 간에 유의성을 보였다( $p < 0.05 \sim p < 0.001$ ). 패스트푸드 섭취빈도에서는 '라면'(2.90점/5점)이 가장 점수가 높았던 반면 '햄버거'(1.93점/5점)가 가장 낮게 나타나서 선호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피자'( $p < 0.001$ )와 '떡볶이'( $p < 0.05$ )에서 남해·합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점수가 낮았던 반면 '라면'( $p < 0.001$ )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점수에서는 지역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by region

Variables	Items	Region			Total	N (%)	$\chi^2$ value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Gender	Male	349 (52.4)	156 (49.4)	156 (49.8)	661 ( 51.0)	1.029	
	Female	317 (47.6)	160 (50.6)	157 (50.2)	634 ( 49.0)		
	Total	666 (51.4)	316 (24.4)	313 (24.2)	1295 (100.0)		
School	Middle	340 (51.1)	169 (53.5)	158 (50.5)	667 ( 51.5)	0.681	
	High	326 (48.9)	147 (46.5)	155 (49.5)	628 ( 48.5)		
	Total	666 (51.4)	316 (24.4)	313 (24.2)	1295 (100.0)		

Table 2. Eating status of fast food by region

Variables	Items	Region			Total	N (%)	$\chi^2$ value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 1 time/month	417 (62.8)	205 (65.1)	204 (65.2)	826 ( 63.9)	3.114	
	2 - 3 time/month	128 (19.3)	59 (18.7)	48 (15.3)	235 ( 18.2)		
	≥ 1 time/week	119 (17.9)	51 (16.2)	61 (19.5)	231 ( 17.9)		
	Total	664 (51.4)	315 (24.4)	313 (24.2)	1292 (100.0)		
Reason of eating fast food	Taste good	322 (49.5)	167 (53.2)	158 (51.0)	647 ( 50.7)	10.465	
	Convenient	203 (31.2)	88 (28.0)	88 (28.4)	379 ( 29.7)		
	Profitable price	42 ( 6.5)	20 ( 6.4)	19 ( 6.1)	81 ( 6.4)		
	Quickness	35 ( 5.4)	26 ( 8.3)	17 ( 5.5)	78 ( 6.1)		
	Others	49 ( 7.4)	13 ( 4.1)	28 ( 9.0)	90 ( 7.1)		
	Total	651 (51.1)	314 (24.6)	310 (24.3)	1275 (100.0)		
Purpose of eating fast food	As a meal	402 (60.6)	181 (57.5)	155 (49.7)	738 ( 57.3)	18.159**	
	As a snack	225 (33.9)	127 (40.3)	144 (46.2)	496 ( 38.4)		
	Others	36 ( 5.5)	7 ( 2.2)	13 ( 4.1)	56 ( 4.3)		
	Total	663 (51.4)	315 (24.4)	312 (24.2)	1290 (100.0)		

\*\* :  $p < 0.01$

Table 3. Preferences and eating frequency on fast food

Items	Preferences			Total	F value	R <sup>1)</sup>	Eating frequency			Total	F value	R <sup>1)</sup>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Chicken	3.97 ± 0.85 <sup>ab)</sup>	4.17 ± 0.77 <sup>b)</sup>	4.19 ± 0.80 <sup>b)</sup>	4.07 ± 0.83	11.006***	1	2.23 ± 0.88	2.27 ± 0.78	2.23 ± 0.93	2.24 ± 0.87	0.179	4
Pizza	3.91 ± 0.85	4.03 ± 0.84	4.00 ± 0.93	3.96 ± 0.87	2.352	2	2.11 ± 0.87 <sup>a)</sup>	2.04 ± 0.79 <sup>b)</sup>	1.77 ± 0.92 <sup>a)</sup>	2.01 ± 0.87	15.833***	5
Dukbokki	3.81 ± 0.96 <sup>a)</sup>	3.91 ± 0.93 <sup>b)</sup>	3.96 ± 0.95 <sup>b)</sup>	3.87 ± 0.95	3.135*	3	2.85 ± 1.22 <sup>a)</sup>	2.64 ± 1.10 <sup>ab)</sup>	2.69 ± 1.21 <sup>a)</sup>	2.76 ± 1.19	3.633*	1
Gimbab	3.62 ± 0.97 <sup>a)</sup>	3.93 ± 0.84 <sup>b)</sup>	3.88 ± 0.96 <sup>b)</sup>	3.76 ± 0.95	15.417***	4	2.47 ± 1.29	2.27 ± 1.17	2.38 ± 1.26	2.40 ± 1.26	2.688	3
Ham-burger	3.62 ± 0.87 <sup>a)</sup>	3.80 ± 0.84 <sup>b)</sup>	3.78 ± 0.91 <sup>b)</sup>	3.70 ± 0.88	5.582**	5	1.92 ± 0.90	1.87 ± 0.84	2.00 ± 1.18	1.93 ± 0.96	1.294	6
Ramyon	3.50 ± 1.02 <sup>a)</sup>	3.69 ± 1.02 <sup>b)</sup>	3.67 ± 1.05 <sup>b)</sup>	3.59 ± 1.03	4.572*	6	2.89 ± 1.42 <sup>a)</sup>	2.69 ± 1.36 <sup>a)</sup>	3.14 ± 1.41 <sup>c)</sup>	2.90 ± 1.41	8.108***	1
Total	22.4 ± 3.5 <sup>a)</sup>	23.6 ± 3.2 <sup>b)</sup>	23.5 ± 4.1 <sup>b)</sup>	23.0 ± 3.6	15.040***		14.5 ± 4.2	13.8 ± 3.7	14.2 ± 4.6	14.2 ± 4.2	3.003	

1) Total ranking

2)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SD). The perfect score of each items was 5 points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2) 패스트푸드 선호도와 섭취빈도와의 관련성

패스트푸드 선호도와 섭취빈도의 상관관계(Table 4)는 상관계수(r)가 0.327(p < 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해 · 합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선호도와 섭취빈도 간에 더 높은 상관관계(r = 0.365)를 보였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선호도가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sup>2</sup>가 0.107이었고(p < 0.001), 상관관계와 마찬가지로 남해 · 합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 높은 영향력(R<sup>2</sup> = 0.134)을 보였다(Table 5).

4. 패스트푸드 섭취와 식행동과의 관련성

1) 식행동

전체 학생들의 식행동 평균점수는 90점 만점에서 64.0점이었으며(Table 6), 창원(67.1점)이 서울(62.8점)과 남해 · 합천(63.6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 < 0.001).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5점 만점에 ‘탄산음료 섭취’(4.40점), ‘외식’(4.32점), ‘단음식 섭취’(4.01점)이 높게 나타났고, ‘과일과 주스 섭취’(2.72점), ‘해조류 섭취’(2.82점), ‘녹황색채소 섭취’(2.94점)는 낮게 나타나서 식행동이 불량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창원이 ‘식사와 규칙성’(p < 0.001)과 ‘양의 적절성’(p < 0.01), ‘쌀을 주식’(p < 0.001), ‘우유 및 유제품 섭취’(p < 0.001), ‘과일 및 주스 섭취’(p < 0.05), ‘균형식 섭취’(p < 0.01), ‘탄산음료 섭취’(p < 0.01)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녹황색채소 섭취’(p < 0.01), ‘지방이용식품 섭취’(p < 0.001), ‘규칙적인 아침식사’(p < 0.001)에서는 창원 과 남해 · 합천이 서울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Table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preferences for and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Region			Total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0.344***	0.294***	0.365***	0.327***

\*\*\*: p < 0.001

2) 패스트푸드 섭취와 식행동 과의 관련성

패스트푸드 섭취와 식행동 과의 상관관계를 보면(Table 7) 상관계수(r)가 -0.233(p < 0.01)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의 상관계수(r = -0.255, p < 0.001)가 약간 더 높은 음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패스트푸드 종류별로 보면 서울은 ‘라면’(r = -0.250, p < 0.001)에서, 창원은 ‘햄버거’(r = -0.217, p < 0.001)에서 그리고 남해 · 합천은 ‘라면’(r = -0.224, p < 0.001)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고, 전체적으로는 ‘라면’(r = -0.233, p < 0.001)이 식행동과 가장 큰 관련성을 보였다.

지역별로 나누어 각 패스트푸드 섭취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Table 8) 서울의 경우 R<sup>2</sup> 값은 0.074(F = 23.578, p < 0.001)로, 약 7.5%의 영향력을 가졌으며 ‘라면’(p < 0.001)과 ‘피자’(p < 0.01)의 회귀계수(β)가 음으로 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창원의 R<sup>2</sup> 값은 0.060이었고(F = 9.255, p < 0.001), ‘햄버거’(p < 0.01)와 ‘라면’(p < 0.05)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남해 · 합천의 경우는 R<sup>2</sup> 값은 0.048로(F = 13.852, p < 0.001)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라면’(p < 0.001)이 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preferences on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Dependent variable	Region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F value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Seoul	Constant	5.157	1.040		4.960***	0.118	82.471***
		Preferences	0.415	0.046	0.344	9.081***		
	Changwon	Constant	5.547	1.574		3.523***	0.086	28.012***
		Preferences	0.350	0.066	0.294	5.293***		
	Namhae · Hapcheon	Constant	4.466	1.480		3.018**	0.134	44.390***
		Preferences	0.415	0.062	0.365	6.663***		
Total	Constant	5.439	0.743		7.323***	0.107	144.011***	
	Preferences	0.383	0.032	0.327	12.000***			

\*\*\*: p < 0.001

Table 6. Dietary behavior scores according to region

Item	Region			Mean ± SD	F value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1. Take 3 meals regularly	3.45 ± 1.66 <sup>a</sup>	4.18 ± 1.37 <sup>c</sup>	3.88 ± 1.54 <sup>b</sup>	3.73 ± 1.59	24.567***
2. Eat always optimal portion	3.58 ± 1.55 <sup>a</sup>	3.89 ± 1.31 <sup>b</sup>	3.51 ± 1.50 <sup>a</sup>	3.64 ± 1.49	6.103**
3. Eat protein food more than 2 meals/day	3.16 ± 1.50	4.15 ± 1.34	3.92 ± 1.51	3.88 ± 1.52	2.663
4. Eat rice more than 2 meals/day	3.74 ± 1.58 <sup>a</sup>	4.15 ± 1.34 <sup>b</sup>	3.92 ± 1.51 <sup>a</sup>	3.88 ± 1.52	7.801***
5. Eat yellow vegetable	2.80 ± 1.45 <sup>a</sup>	3.07 ± 1.45 <sup>b</sup>	3.08 ± 1.53 <sup>b</sup>	2.94 ± 1.48	5.565**
6. Eat fattened food	3.03 ± 1.42 <sup>a</sup>	3.39 ± 1.39 <sup>b</sup>	3.27 ± 1.43 <sup>b</sup>	3.18 ± 1.42	7.717***
7. Eat milk and dairy products	3.34 ± 1.62 <sup>a</sup>	3.82 ± 1.50 <sup>b</sup>	3.26 ± 1.63 <sup>a</sup>	3.44 ± 1.61	12.164***
8. Eat fruits and juice	2.72 ± 1.56 <sup>ab</sup>	2.90 ± 1.55 <sup>b</sup>	2.54 ± 1.50 <sup>a</sup>	2.72 ± 1.55	4.286*
9. Eat seafoods	2.84 ± 1.47	2.80 ± 1.44	2.80 ± 1.42	2.82 ± 1.45	0.104
10. Eat happily	3.63 ± 1.40	3.83 ± 1.30	3.67 ± 1.44	3.69 ± 1.39	2.210
11. Eat balanced diet	3.22 ± 1.52 <sup>a</sup>	3.54 ± 1.46 <sup>b</sup>	3.39 ± 1.52 <sup>ab</sup>	3.34 ± 1.51	5.061**
12. Eat breakfast regularly	3.57 ± 1.70 <sup>a</sup>	4.03 ± 1.51 <sup>b</sup>	3.82 ± 1.57 <sup>b</sup>	3.75 ± 1.64	8.996***
13. Eat instant foods	3.31 ± 1.41	3.35 ± 1.48	3.21 ± 1.54	3.29 ± 1.46	0.813
14. Eat out	4.29 ± 1.22	4.42 ± 1.16	4.29 ± 1.32	4.32 ± 1.24	1.380
15. Eat fat contained animal food	3.71 ± 1.30	3.79 ± 1.25	3.69 ± 1.34	3.72 ± 1.30	0.537
16. Eat salty foods & MSG used foods	3.74 ± 1.34	3.80 ± 1.23	3.82 ± 1.35	3.78 ± 1.32	0.446
17. Eat sweetened foods	4.06 ± 1.29	3.97 ± 1.38	3.96 ± 1.39	4.01 ± 1.34	0.747
18. Eat about 2 cups carbonated drink/day	4.40 ± 1.22 <sup>ab</sup>	4.56 ± 1.03 <sup>b</sup>	4.23 ± 1.33 <sup>a</sup>	4.40 ± 1.21	6.124**
Mean ± SD	62.8 ± 11.7 <sup>a</sup>	67.1 ± 9.7 <sup>b</sup>	63.6 ± 11.5 <sup>a</sup>	64.0 ± 11.3	15.442***

The total score of 18 items (possible score: 18~90). To calculate the total score, each item was measured from 1(0-2 day/week) to 5(6-7 day/week). The items from 13 to 18 were scored reversely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7.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and Dietary behavior

Items	Region			Total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Western style fast food				
Hamburger	-0.148***	-0.217***	-0.119*	-0.152***
Chicken	-0.131***	-0.164**	-0.099	-0.125***
Pizza	-0.172***	-0.146*	-0.103	-0.145***
Korean style fast food				
Gimbab	-0.173***	-0.079	-0.150*	-0.156***
Dukbokki	-0.121**	-0.032	-0.016	-0.078**
Ramyon	-0.250***	-0.164**	-0.224***	-0.233***
Total	-0.255***	-0.207***	-0.184**	-0.233***

\*: p < 0.05, \*\*: p < 0.01, \*\*\*: p < 0.001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R<sup>2</sup>가 0.063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F = 38.932, p < 0.001), ‘라면’ (p < 0.001)과 ‘피자’ (p < 0.001)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리고 섭취빈도 총점과 식행동과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R<sup>2</sup>는 0.054이었다 (F = 66.484, p < 0.001).

### 5. 패스트푸드 섭취와 사회성, 분노표현과의 관련성

#### 1) 사회성과 분노표현

대상자의 지역별에 따른 사회성 및 분노표현(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점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사회성의 경우는 남해 · 합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

Table 8.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on dietary behavior

Dependent variable	Region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F value
Dietary behavior	Seoul	Constant	71.590	1.451		49.349***	0.074	23.578***
		Ramyon	-1.825	0.331	-0.222	-5.508***		
		Pizza	-1.726	0.555	-0.125	-3.111**		
	Changwon	Constant	73.602	1.620		45.438***	0.060	9.225***
		Hamburger	-2.205	0.689	-0.187	-3.202**		
		Ramyon	-0.901	0.425	-0.124	-2.118*		
	Namhae · Hapcheon	Constant	69.334	1.687		41.097***	0.048	13.852***
		Ramyon	-1.804	0.485	-0.220	-3.722***		
	Total	Constant	71.726	0.982		73.024***	0.063	38.932***
			Ramyon	-1.697	0.232	-0.211		
Pizza			-1.393	0.380	-0.106	-3.667***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Constant	73.068	1.155		63.246***	0.054	66.484***
			-0.636	0.078	-0.233	-8.154***		

\*: p < 0.05, \*\*: p < 0.01, \*\*\*: p < 0.001

Table 9. Sociality and anger expression score according to region

Variables	Region			Total	F value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Sociality	15.9 ± 3.7 <sup>a1)</sup>	16.0 ± 3.4 <sup>b</sup>	14.8 ± 4.1 <sup>a</sup>	15.7 ± 3.8	10.040***
Anger-in	14.1 ± 3.8 <sup>a</sup>	13.8 ± 3.4 <sup>a</sup>	14.8 ± 4.3 <sup>b</sup>	14.2 ± 3.8	4.778**
Anger-out	15.0 ± 3.9 <sup>a</sup>	15.0 ± 3.5 <sup>a</sup>	15.6 ± 4.1 <sup>b</sup>	15.2 ± 3.9	3.174*
Anger-control	19.2 ± 4.5	19.0 ± 4.2	18.7 ± 4.7	19.0 ± 4.5	0.981

1) Mean ± S.D

2) Superscripts with different alphabets 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 < 0.05, \*\*: p < 0.01, \*\*\*: p < 0.001

수를 보인 반면 (p < 0.001) 무조건적인 분노억제 (p < 0.01) 와 공격적인 분노표출 (p < 0.05)은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분노통제에서는 지역 간에 차이가 없었다.

2) 패스트푸드 섭취와 사회성과의 관련성

패스트푸드 섭취와 사회성과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지역별로 나누어 각 패스트푸드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한 결과 (Table 11)를 보면 서울지역에서만 R<sup>2</sup> 값이 0.012로 낮은 설명력을 갖고 (F = 7.355, p < 0.01) '떡볶이' (p < 0.01)만이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역적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분석한 회귀분석의 R<sup>2</sup>는 0.008 (F = 8.981, p < 0.01)이었고, '떡볶이' (p < 0.01)만이 채택되었다. 한편 패스트푸드 섭취빈도 총점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각각이었다.

Table 10.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and sociality

Items	Region			Total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Western style fast food				
Hamburger	0.081*	0.010	-0.098	0.003
Chicken	0.103*	-0.020	-0.023	0.042
Pizza	0.038	0.028	0.057	0.060*
Korean style fast food				
Gimbab	0.010	0.027	0.021	0.016
Dukbokki	0.101*	0.005	0.109	0.085**
Ramyon	0.037	-0.051	0.009	-0.006
Total score	0.096*	-0.003	0.005	0.047

\*: p < 0.05, \*\*: p < 0.01

3) 패스트푸드 섭취와 분노표현과의 관련성

패스트푸드 섭취와 분노표현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2와 같다. 분노억제는 패스트푸드 섭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노표출은 패스트푸드

드 섭취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 $r = 0.213, p < 0.001$ ), 분노통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 $r = -0.147, p < 0.001$ ), 지역별로는 상관계수 값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패스트푸드가 분노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Table 13) 패스트푸드 섭취는 분노억제와의 회귀분석에서 각각되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분노표출

과 분노통제에서만 채택되었다. 패스트푸드 섭취는 분노표출에 대한 영향력 ( $R^2$ )이 0.045이었으며, 지역별로는 비슷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패스트푸드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분노표출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통제에 대한 패스트푸드 섭취가 가지는  $R^2$ 은 0.021로 낮았으나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채택되었고, 특히 서울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R^2$  값을 가졌다.

Table 11. Regression analysis of effect of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on sociality

Dependent variable	Region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2$	F value
Sociality	Seoul	Constant	14.973	0.378		39.560***	0.012	7.355**
		Dukbokki	0.330	0.122	0.112	2.712**		
	Total	Constant	14.908	0.278		53.668***	0.008	8.981**
		Dukbokki	0.276	0.092	0.088	2.997**		

\*\* :  $p < 0.01$ , \*\*\* :  $p < 0.001$

Table 1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and anger expression

Items	Region			Total
	Seoul	Changwon	Namhae · Hapcheon	
Angry-in	0.017	0.047	-0.003	0.018
Angry-out	0.215***	0.220***	0.206***	0.213***
Angry-control	-0.172***	-0.128*	-0.124*	-0.147***

\* :  $p < 0.05$ , \*\*\* :  $p < 0.001$

Table 13. Regression analysis of effect of eating frequency of fast food on anger expression

Dependent variable	Region	Independent variable	B	SE	$\beta$	t	$R^2$	F value
Angry-out	Seoul	Constant	12.090	0.570		21.219***	0.046	29.259***
		Eating frequency	0.205	0.038	0.215	5.409***		
	Changwon	Constant	12.201	0.740		16.491***	0.048	15.112***
		Eating frequency	0.201	0.052	0.220	3.887***		
	Namhae Hapcheon	Constant	13.124	0.761		17.250***	0.042	12.553***
		Eating frequency	0.181	0.051	0.206	3.543***		
Total	Constant	12.390	0.389		31.892***	0.045	56.222***	
	Eating frequency	0.197	0.026	0.213	7.498***			
Angry-control	Seoul	Constant	21.822	0.641		34.061***	0.029	18.449***
		Eating frequency	-0.183	0.043	-0.172	-4.295***		
	Changwon	Constant	21.048	0.937		22.456***	0.016	4.904*
		Eating frequency	-0.145	0.066	-0.128	-2.215		
	Namhae Hapcheon	Constant	20.627	0.901		22.880***	0.015	4.425*
		Eating frequency	-0.128	0.061	-0.124	-2.104*		
	Total	Constant	21.295	0.454		46.948***	0.021	26.381***
		Eating frequency	-0.157	0.031	-0.147	-5.136***		

\* :  $p < 0.05$ , \*\* :  $p < 0.01$ , \*\*\* :  $p < 0.001$

## 고 찰

### 1. 패스트푸드 이용 실태

본 연구에서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빈도는 ‘한 달에 1회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63.9%), Kim & Park(2005)의 충주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한 달에 2회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42.3%) Jeong(2001)의 연구에서는 ‘1주일에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이용하는 고등학생이 32.5%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과 김천지역을 비교한 연구(Yoon & Wi 1994)에서는 대도시일수록, 관련업체가 많을수록 패스트푸드 소비가 많다고 하였고, Jo & Kim(2004)의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점에 ‘전혀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다고 하였으나 본 결과에서는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에 있어 지역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대도시에서부터 농어촌지역에 까지 보편화되어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Kim & Jo(1994)와 Cho & Han(1996)의 1990년대 연구 결과에서는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이유로 ‘간편해서’, ‘시간이 절약되어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두드러졌던 반면, 본 연구와 Park 등(2005)의 연구에서는 ‘맛이 있어서’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요즘의 청소년들은 또래친구와 교류의 장소로서의 공간적 의미보다 기호의 만족을 위한 의미로 패스트푸드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패스트푸드를 먹는 목적으로는 ‘식사대용’(57.2%)이 가장 높았고 ‘간식’(38.4%) 순이었는데, Jeong(2001)의 연구에서도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의 68.3%가 패스트푸드가 한 끼 식사로 적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Kim & Park(2005)의 연구에서는 ‘간식’(59.5%)과 ‘식사대용’(37.5%) 순으로 나타났고, Lyu 등(2006)의 연구에서도 비율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간식’(50.2%), ‘식사’(39.5%)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 2.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 및 섭취빈도

본 연구에서는 6종류의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총점 30점 중에서 23.0점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yu 등(2006)의 연구에서도 ‘좋아한다’(47.4%)와 ‘그저 그렇다’(47.9%)가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3점 척도로 패스트푸드의 선호도를 조사한 Lee(2004)의 연구에서도 패스트푸드를 ‘좋아한다’가 67.6%로 높게 나타났다.

이전에 국내에서 행해진 패스트푸드 선호도 조사들의 대부분은 서양식 패스트푸드로 행해졌고, 그 결과를 보면 Lyu 등(2006)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햄버거점’(62.7%)과 ‘치킨점’(37.3%)을 가장 선호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1996)과 Kim 등(2004)의 연구에서는 ‘햄버거점’, ‘치킨점’, ‘피자점’ 순으로 선호하였던 반면 한국식 패스트푸드와 함께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치킨’, ‘피자’, ‘떡볶이’ 순으로 나타나 이전 연구들과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선호도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점수가 낮았는데, 선호도와 섭취빈도 평가를 위해 이용한 5점 척도의 구간설정이 동일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앞으로 선호도와 섭취빈도 비교를 위해서 이용하는 척도의 고려도 필요하리라 본다. 한편 선호도에서 가장 순위가 낮았던 ‘라면’이 섭취빈도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았는데, 비록 선호도에서 순위는 낮았으나 선호도 점수가 3.59점(5점)으로 높았고,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결과에 따르면 13~15세 남학생의 경우 라면이 1위인 백미에 이어 주요 에너지 급원 식품 2위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백미, 돼지고기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라면이 가지는 저장성, 편리성 등의 여러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Lyu 등(2006)의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 선호도와 이용횟수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는데( $r = 0.329, p < 0.01$ ) 본 연구에서도 선호도와 섭취빈도 간의 상관관계수( $r$ )가 0.327( $p < 0.01$ )로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섭취에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치겠으나 선호도가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약 10.7% 정도로 높았다.

### 3. 패스트푸드 섭취와 식행동과의 관련성

본 연구에서 패스트푸드 섭취와 식행동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 $p < 0.001$ )를 보여 패스트푸드 섭취로 인해 건강과 식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한 여러 연구들(Jeong & Kim 2001; Lee 2004; Yoo 등 2004; Lyu 등 2006; Song 등 2006)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섭취 빈도에서는 지역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패스트푸드 섭취와 식행동 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서울의 상관관계수( $r = -0.255$ )가 가장 높았고( $p < 0.001$ ), 남해·합천의 상관관계수( $r = -0.184$ )가 가장 낮게 나타나( $p < 0.01$ )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패스트푸드 섭취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행동 형성에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에서 관심을 가진 패스트푸드 섭취가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약 5.4% 정도였고, 패스트푸드 종류 중에서는 '라면'이 식행동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아마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패스트푸드 중 라면의 섭취빈도가 가장 높는데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며,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Kim & Park(2005)의 연구에서도 패스트푸드 이용횟수가 많을수록 실제 식생활에서도 짠 음식( $r = 0.12, p < 0.05$ ), 단 음식( $r = 0.19, p < 0.001$ ), 햄류( $r = 0.24, p < 0.001$ ), 가공식품( $r = 0.22, p < 0.001$ ), 냉동식품( $r = 0.15, p < 0.001$ ), 라면( $r = 0.21, p < 0.001$ ), 과자( $r = 0.17, p < 0.01$ ) 등을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패스트푸드 섭취와 사회성, 분노표현과의 관련성

청소년의 패스트푸드 식습관과 인성에 관한 조사 결과(Seo 1992)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이용집단은 안정성이 낮고 충동성과 사회성이 높았으며, 패스트푸드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은 안정성이 가장 높았고 사회성, 충동성의 순으로 낮았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결과 패스트푸드 섭취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의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이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패스트푸드를 또래친구와의 사교목적 보다는 기호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종류에서 '떡볶이'가 사회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스트푸드 종류가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바람직한 분노표현이란 무조건적인 분노억제나 공격적인 분노표출은 감소시키고 분노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패스트푸드와 분노억제 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분노표출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 = 0.213, p < 0.001$ ), 분노통제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 = -0.147, p < 0.001$ ). 이는 패스트푸드가 분노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노표출에 대한 설명력은 약 4.5% 정도였고, 분노통제에 대한 설명력은 약 2.1%로 낮았으나 패스트푸드를 섭취할수록 분노표출은 많아지고, 분노통제는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hoi(2005)의 연구에서도 패스트푸드 이용횟수와 패스트푸드 점에서 보내는 시간에 따라 적대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한 바 있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중 · 고생 1295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 섭취가 식행동 및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알아보기 위하여 행해졌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패스트푸드는 '한 달에 1회 이하'로 이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63.9%).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이유로는 '맛이 있어서'(50.7%)가 가장 많았고 '간편해서'(29.7%), '가격이 싸서'(6.4%) 순이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섭취의 주된 목적으로는 서울(60.6%)과 창원(57.5%)은 '식사대용'으로, 남해 · 합천은 '간식용'(46.2%)으로 섭취하는 빈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 < 0.01$ ).

2. 선호하는 패스트푸드로는 '치킨'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라면'이 가장 낮았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선호도는 서울이 창원과 남해 · 합천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p < 0.001$ ).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라면'이 가장 점수가 높았던 반면 '햄버거'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체 점수에서는 지역별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패스트푸드 선호도와 섭취빈도는 양의 상관관계( $r = 0.327$ )를 보였고, 영향력( $R^2$ )은 0.107로 비교적 높았으며, 남해 · 합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3. 패스트푸드 섭취와 식행동 평균점수는 음의 상관관계( $r = -0.233$ )를 보였고, 특히 서울에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패스트푸드 종류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라면'에서,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라면'에서, 창원은 '햄버거'에서 그리고 남해 · 합천은 '라면'에서 상관관계가 높았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섭취가 식행동에 약 5.4%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종류별로 보면 서울( $R^2 = 0.074$ )은 '라면'과 '피자'가, 창원( $R^2 = 0.060$ )은 '햄버거'와 '라면'이, 남해 · 합천( $R^2 = 0.048$ )은 '라면'만이 식행동에 영향을 주었고, 전체적( $R^2 = 0.063$ )으로 보면 '라면'과 '피자'가 식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4. 패스트푸드 섭취와 사회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패스트푸드 섭취와 사회성과의 회귀분석 결과 각각  $R^2$ 가 0.008이었고, '떡볶이'만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서울( $R^2 = 0.012$ )에서 '떡볶이'가 사회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패스트푸드 섭취와 분노억제는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분노표출과는 양의 상관관계( $r = 0.213$ )를, 분노통제는 음의 상관관계( $r = -0.147$ )를 보였다. 그리고 회귀분석 결과 패스트푸드 섭취가 '분노표출'과 '분노표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각각에 미치는 영향력은 4.5%와 2.1%이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선호도는 섭취빈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패스트푸드 섭취빈도는 식행동과 분노

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은 패스트푸드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결국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영양교육시 지역적인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겠다. 그리고 한국식 패스트푸드에 대한 연구와 패스트푸드 섭취와 인성의 관계에 대한 좀 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2005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의 자유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수행된 결과의 일부로 연구비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 참고 문헌

- Cho CM, Han YB (1996): Dietary behavior and fast-foods use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Home Econ* 8(2): 105-119
- Choi DS (2005): fast food consumption &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Gutfeld G, Rao L (1993): Move your moods. *Prevention* 45(1): 8-9
- Hahn DW, Chon KK, Lee CH (1997): Korean adaptation of the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 anger and blood pressure. *Korean J Health Psyc* 2(1): 60-78
- Jeong JH (2001): A survey of dietary behavior and fast food consumption by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 Human Ecol* 39(10): 111-124
- Jeong JH, Kim SH (2001): A survey of dietary behavior and fast food consumption by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 Human Ecol* 39(10): 111-124
- Jo HY, Kim SA (2004):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patterns of youth: Junior high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rom different regions. *Korean J Food Culture* 19(3): 336-347
- Kim HK (1996): Fast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llege students in Ulsan. *Korean J Diet Culture* 11(1): 131-141
- Kim KA, Cho SH (1994): A survey on consciousness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using fast food restaurants in Kwangju. *J East Asian Soc Diet Life* 4(2): 27-37
- Kim KN, Park EJ (2005): Nutrient density of fast-food consumed by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ongju city. *Korean J Comm Nutr* 10(3): 271-280
- Kim KW, Ahn Y, Kim HM (2004): Fast food consumption and rel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Daejeon. *Korean J Comm Nutr* 9(1): 47-57
- Kim KW, Shin EM, Moon EH (2004): A study on fast food consumption, nutritional knowledge, food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Diet Assoc* 10(1): 13-24
- Lee SS (2004): A study on dietary behavior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their preferences for fast food. *Korean J Comm Nutr* 9(2): 204-213
- Lyu ES, Lee KA, Yoon JY (2006): The fast foods consumption patterns of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Busan area. *J Korean Soc Food Sci Nutr* 35(4): 448-455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Report on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http://www.khidi.or.kr>)
- Park EJ, Kim KN, Cho JS (2005): Dietary habits and nutrient intake according to the frequency of fast food consump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Cheongju area. *J Human Ecol* 9(2): 165-178
- Park MR, Kim SH, Wi SU (1999): The consumption patterns of fast food in small cities. *Korean J Diet Culture* 14(2): 139-146
- Pollitt E (1994):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Relevance of research in developing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Child Development* 65(1): 283-295
- Pudel V, Westenhofer J (1991): Hogrefe verlag fur psychologie. *Ernahrungs-psychologie*
- Seo YS (1992): A study on the dietary habit of fast food and personality of juvenile. Home Economics education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 Song YJ, Joung HJ, Kim YN, Paik HY (2006): The physical development and dietary intake for Korean children and adolescents: Body composition and obesity prevalence. *Korean J Nutr* 39(1): 50-57
- Yoo SY, Song YJ, Joung HJ, Paik HY (2004): Dietary assessment using dietary patter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 Nutr* 37(5): 373-384
- Yoon HJ, Wi SU (1994): A survey of college student behaviors on fast food restaurants. *J Korean Soc Food Sci Nutr* 7(4): 323-331
- 이상로, 변창진, 진위교, 율음 (2000): 표준화 성격진단검사, 중앙적성연구소, 서울
-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패스트푸드의 영양함량 및 섭취실태 조사'